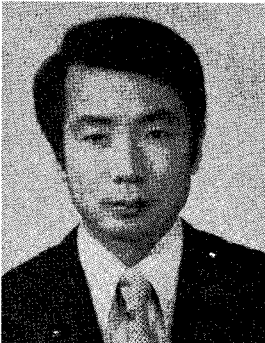


# 양계산업의 계열화와 축협의 역할

양계인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양계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여 수요에 적응하는 계획생산체제로 양계산업은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계열화가 곧 수익의 극대화 수단이 아니고 전체 양계산업의 안정적, 균형적 발전을 주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초기 개발단계에 그 주체는 양계농가 자신들의 협동조직체 이면서 공동적 기능이 강조되는 축협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문 기 한  
(축협중앙회 관측과장)

## I. 머리말

본래 농가에서 한두마리의 씨암탉을 키워서 얻은 몇개의 달걀을 껌쩍하게도 아껴먹던 형태의 우리나라 양계가 사양 기술이 점차 개발되고 생산력이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한때는 "비닐 하우스 양계"라는 명예롭지 못한 이름으로 기회주의자들의 투기대상으로까지 인식되어 오던 것이 70년대 말을 고비로 오늘날에는 다른 축종(소, 돼지, 등)에 비하여 한국축산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질병예방이나 사양기술 등에서 선진기술이 개발되었고, 산업화가 촉진됨으로써 외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국민 1인당 육류소비량이 10kg대를 넘어서면서 양계 산물이 다른 축산물에 비하여 열등시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계란은 매년 소비증가율이 둔화(총 소비량은 증가함)되고 있으며, 육계는 여러가지 소비형태(후라이드치킨 등)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생산면에서는 수요변동에 대한 적응능력이 예민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일부 사육농가에서는 판매가격의 약세를 경영의 합리화나 생산비 절감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에 앞서 전체 사육수수를 늘려서라도 나만의 총수입을 증대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무계획한 사양을 계속하는 실정에 있어 단기적인 수급상의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같은 불안정 속에서는 양축소득의 안정적 증대는 고사하고 양계부문에 장기적 투자를 유인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종계나 사료원료 곡물의 도입을 위하여 비싸게 지불된 외화를 낭비하는 결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양계산업의 근본적 치유대책으로 본론에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계열화"에 대하여 그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양축농가의 협동조직체인 축협을 중심으로 한 계열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양계산업의 개황

### 1. 사육동향

원래가 채란양계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양계도 이제는 채란계, 육계, 종계, 그리고 겸용으로까지 분리되어 사육될 뿐만 아니라 종계도 일부 생산할 정도로 전문화되고 있다. 1960년에만 하더라도 총사육 수수는 1,200만수에 불과하였고, 1970년에도 2,300만수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000만수 수준을 넘게 사육하고 있는데 이를 인구 천명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3,000수가 가까이 사육하고 있는 이웃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아직은 많은수수를 사육하는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닭은 산물의 유통상 특성 때문에 주로 소비도시를 중심으로 사육되고 있어 서울, 경기 지역에 전체수수의 46.5% 이상이 분포되는 등 지역적 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닭은 다른 축종에 비해 기업화가 신속하게 이뤄져 대규모 사육비중이 큰 축종으로서 만수이상 사육하는 농가 비중은 0.2%에 불과

하지만 이들이 사육하는 수수 비중은 47.2%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유통 및 가격동향

우리나라에서 생산, 소비되는 5대 주요 축산물 중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산지 가축시장으로부터 소비지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지배적이지는 못하지만 공공 조직의 유통기능이 어느정도 참여하고 있어 거래 질서를 제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유 또한 유통이 단순한데도 상당부분 공공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양계산물만은 거의 전량을 민간 개개 유통기능에 의존한 채 전문 도매 시장도 없이 대도시에 산재해 있는 많은 도매상들이, 그것도 분산적으로 가격 형성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수급상황 또한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양계산물의 경우 중심이 되는 거래가격의 형성이 미흡함에 따라 사육 농가는 물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폐해가 적지 않다.

이와같은 유통환경에서 육계의 경우는 생계 유통을 도계육유통으로 전환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까지 더하여 계절별로 양계산

〈표 1〉 닭 사육수수의 지역별 분포와 주사육 지역(83. 12월)

구 분	서울·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	총 남	전 남	기 타	계
마 리 수(천수)	22,918	7,842	5,363	4,732	2,593	5,792	49,239
사육비중(%)	46.5	15.9	10.9	9.6	5.3	11.8	100.0
주사육지역	150만수 이상 : 양주, 포천, 김포, 광주군, 남양주, 인천, 용인 100~150만수 : 안성, 화성, 이천 80~100만수 : 경산, 파주, 철곡, 고양, 대구, 김해, 양산, 부산, 월성						

〈표 2〉 사육규모별 호수 및 수수분포(83. 12월)

구 분		계	50수 미만	50~1,000	1,000~3,000	3,000~10,000	10,000수 이상
호수	호수(천호)	538,369	529,750	1,164	2,747	3,661	1,047
	비중(%)	100.0	98.4	0.2	0.5	0.7	0.2
수수	수수(천수)	49,237	1,975	513	4,969	18,554	23,228
	비중(%)	100.0	4.0	1.0	10.1	37.7	47.2

물의 가격진폭을 보면 최근 5년 평균 35~5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양계산물의 연도별 가격진폭 비교

구 분	'79	'80	'81	'82	'83	평균
닭고기	59.5	53.1	47.8	37.4	48.7	49.3
계란	51.3	32.6	32.7	31.4	28.7	35.3

이처럼 계절적으로 가격변동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뜻이며 수급 불균형의 일차적인 책임은 소비자 보다는 생산자들의 협동조직을 배경으로 한 적정수준의 생산을 위한 노력이 결핍되어 왔다는 증거라고 설명될 수도 있다.

### 3. 소비동향

그동안 다른 축산물의 소비증대와 더불어 양계산물의 소비량도 70년과 비교해볼때 83년 현재 1인당 소비량이 닭고기의 경우 1.4kg에서 3.0kg으로, 계란의 경우 4.2kg에서 6.8kg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5대 축산물을 년평균 소비증가율 면에서 비교해 보면 60년대만 하더라도 다른 축산물에 비하여 양계산물 소비증가율이 높았으나 70년대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둔화내지는 감소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근 소비자들은 기왕이면 계란보다는 고기를, 고기에서도 닭고기보다는 쇠고기 아니면 돼지고기를 더 선호함으로써 육류중 닭고기의 소비비중은 70년에 27.4%이던 것이 83년에는 22.6%로 감소된 것이다.

〈표 4〉 주요국의 양계산물 1인당 소비량 비교

구분	닭고기(kg)	지수	계란(개)	지수
한국	3.0	100	124	100
일본	10.3	343	242	195
홍콩	15.2	510	260	210
미국	23.2	773	223	180

우리나라 국민의 양계산물 소비수준을 우리와 식단 형태가 비슷한 이웃 나라와 비교해 보면 닭고기의 경우 83년 현재 우리보다 홍콩은 5배, 일본은 3배, 그리고 미국은 7배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 Ⅲ. 양계의 특성과 당면과제

### 1. 특성

우리나라에서 사양되고 있는 많은 가축 중에서 소, 돼지, 닭을 주요 가축이라 하는데 이 중에서도 닭이 다른 축종에 비하여 어떤 상대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양계 산업의 발전 대책에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첫째, 생산이 극히 단기적이므로 자금 회전율이 높다. 소의 경우 송아지를 낳는데 10개월이 걸리고 이것이 성우가 되어 고기를 생산하기까지는 다시 2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가 하면 돼지도 4개월이 되어야 새끼를 낳고 새끼가 성돈이 되기까지는 다시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비하면 닭이야 극히 단기성 가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기에 투자된 자금의 회전도 소에 비하면 10배 이상, 돼지에 비해서도 3배 이상이나 빨라 비록 적은 규모의 수익이라도 같은 기간에 여러번 얻을 수 있어 경영 합리화의 여지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반하여 부(貧)의 수익은 경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어서 양계업 전체에 파급되는 영향이 크다.

둘째, 증식력이 거의 무한하게 크다는 점이다. 소는 오래 걸리면서도 겨우 1마리의 새끼를, 돼지라도 평균 10여두의 새끼를 낳는데 비하여 닭은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의 병아리를 단기간에 부화할 수 있어 증식력이 무한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한 증식력은 곧 생산의 기복을 크게 할 수 밖에 없는 본질을 갖고 있어 양계농가에게는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사

육규모에 대한 통제력이 가해져야만 양계업의 과잉·과소 사육에 의한 호·불황의 반복을 극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본질적인 특성에다 수요의 계절성과 사료의 수급 사정까지 여의치 못할 때는 가격 변동폭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양계는 비교적 고도의 사양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후사료 편중적이다. 닭은 우수한 형질의 퇴화성이 빠를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다병성이므로 해서 종계 및 부화 분야가 별도로 분리되고 있고 또 고도의 예방대책이 필요한 가축이다.

또한 사료면에서도 주로 농후 사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비중 현금지출 비용이 높아 가격수준이 경영의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육계의 경우 높은 사료섭취율 때문에 수급 안정상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출하조절 기능이 거의 불가능하여 시장 조건에 무관하게 출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네째, 양계산물은 다른 축산물보다 소득 탄성치가 낮다. 즉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축산물이나 가격에 따라 소비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 계속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같은 고기라도 쇠고기를, 기왕이면 우유를 더 많이 소비하고 닭고기나 계란은 점점 덜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닭고기가 새로운 형태의 식품으로 계속 개발 보급되고 있지만 뚜렷한 소비 증가세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란은 소세지같은 가공식품에 밀려 소비중심권이 이미 대도시로부터 소도시나 농촌으로 밀려나는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당면과제

이상 개괄적이거나 검토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계업계가 해결해 나가야 할 적지않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첫째, 양계농가의 협동적 조직력을 강화하여 자율적 생산조절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중에는 기술 개발이나 전업화 면에서 가장 선도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양계농가들의 협동적 조직력이 결핍됨으로 해서 다수 사육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절 등 경영과 판매활동에서 조직적 기능이 결여되어 무계획적 생산을 반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급의 불안정을 가중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둘째, 우수한 국산 종계의 개발을 유도하고 부화장의 공공적 기능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외국산 종계의 수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능력 때문에 국산 종계의 개발은 위축당해 온 셈이다. 실용계의 수입 의존율이 아직도 절대적인데다 사료의 해외 의존도까지 80%를 넘는다면 적정사육의 유도로 경영의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활동이 절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양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화장까지 영세 난립되어 경쟁적으로 무계획적 부화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불량 병아리 유통의 원천이 됨으로써 수급의 불안정을 오히려 자극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셋째, 양계산물의 유통에서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이들의 중심 거래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할 도매시장 기능이 어떤 형태로든 개발되어야겠다.

어떤 농산물이나 마찬가지로지만 양계산물이 생산자 손을 떠나 수집과 분산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주로 3단계의 차등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중 특히 도매가격은 전체적인 수급상황이 반영되어 형성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가격으로서 이 가격이 산지와 소매단계에 각각 연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이를 담당할 도매시장 기능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나라 양계산물의 유통에서는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는 몇몇 대규모 도매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수급상황이 적정하게 반영된 공정가격이라는 객관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네째,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양계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앞서 양계산업의 개황에서도 소개된 바와 같이 닭고기가 계란의 전체 소비량은 매년 계속 증가하지만 연평균 소비 증가율 면에서 보면 최근 그 증가율이 다른 축산물에 비하여 둔화 또는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닭고기나 계란보다는 쇠고기나 우유 또는 육가공품을 더 소비하겠다는 구매성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수준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양계산물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 된다는 것은 선진국의 예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IV. 양계산업의 계열화와 축협의 역할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세부적인 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양계업이 처해있는 입장과 경제적, 사회적 연관성에 비추어 비교적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계열화”에 대하여 이의 기본 개념과 유형, 그리고 이를 위한 축협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1. 계열화의 기본개념

산업이 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동일 산업이 갖고 있는 이질적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원만하게 수행될 때 산업 전체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즉 축산에서 보면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순수한 농업 기능이 되는 것이고 이를 도축하거나 사료나 동물약품 등을 생산 공급하는 것은 공업 기능이며 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상업 기능인으로서 이들 세가지 기능은 상호 이해 상반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업 기능을 담당하는 사육농가 측에서 보면 생산요소의 구매와 생산품의 판매 과정에서 가격이 통상 다른 기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므로 생산기

간 중에 발생하는 가격변동의 위험을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는 생산자재 공급부문과 유통·가공부문의 불이익으로까지 연결되어 나중에는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수요와 공급면에서 불안정한 특성을 갖고 있는 축산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농업기능, 공업기능 그리고 상업기능이 하나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경제적인 통합을 이룰 때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고 축산업 전체가 장기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계열화란 일반 산업조직에서도 여러 경영체의 통합을 뜻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지만 축산에서는 「가축의 생산과정을 전후한 여러 단계 즉, 생산요소의 공급단계, 사육단계, 도축 및 가공단계, 유통단계중 두가지 이상의 단계가 동일한 경영 관리하에서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생산 및 유통의 계열화」라고 한다.

따라서 계열화의 효과라 한다면 ① 통일된 규모의 생산물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생산자재의 확보가 원활하다. ③ 조직적인 시장확대가 가능하다. ④ 생산·유통 및 판매과정에서의 위험을 분산시켜 이를 최소화 함으로써 종합적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⑤ 자원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다. ⑥ 효율적인 유통체계 확립이 가능하다. ⑦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⑧ 사육부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이 가능하다. ⑨ 축산관련 부문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같은 계열화 생산체제도 비교적 생산과 소비가 대량일 때 보다 능률적이라 할 수 있는데 축산에서도 특히 양계는 생산기간도 짧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소비 또한 “후라이드치킨” 등으로 대량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열 생산이 가장 적합한 축종이라 할 수 있다.

##### 2. 계열화의 유형

이상 소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유리성이 크게 기대되는 계열화

의 유형을 소개하면 외형적 조직 형태에 따라서 생산을 중심으로 최종 판매에까지 각단계를 종적으로 통합하여 형성하는 종적 계열화와 동일한 단계가 개별 개체 상호간에 횡적으로 형성하는 횡적 계열화로 크게 분류되며, 같은 종적 계열화라도 통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계열주체가 사육농가에게 단순히 자금이나 기술지도 정도만 제공하는 기초 형태로부터 전반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 사육농가에게는 일정한 몫만을 지불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그중에도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종적으로 2가지 이상의 단계가 완전히 통합한 후 참여 부문에 대하여서는 소정의 몫만을 지불하는 형태인데 그 몫을 지불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이윤배분형 : 계열화 주체가 사육농가에게 제공하는 자재는 시가로 계산하고 경영과 판매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형태.

② 정액보장형 : 사육농가는 오직 생산시설과 노동력 만을 제공하고 여타 부분은 계열화 주체가 완전 책임지며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사육자에게 보장해주는 형태.

③ 능률급형 : 정액보장형과 비슷한데 다만 이윤 배분 방식에서 생산능률에 따라 일정율의 추가이익 배분도 보장하는 형태로서 가장 일반적인 계열화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④ 고정급형 : 사육농가에게 일종의 월급 형태로 지불해주는 방식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계열화가 이루어지든 경제적 약자로 인정되고 있는 생산기능은 다른 여타 기능에 종속되어 계열화를 형성하는 것이 통례라 할 수 있다.

### 3.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계열화 방향

이상 계열화의 기본개념과 유행에서 살펴본 대로 계열화 생산체제가 처음으로 구상되고 발전된 서구제국과는 생산유통 등 양계의 산업적 여건은 비록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날 우리나라 양계 산업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안정 생산을 위한 경영 시스템의 일환으로 양계산업의 계열화 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볼 수 있다.

앞절 개황의 <표 2>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8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양계농가 53만 8천호 중에서 농가 자급형의 부업적 사육형태라 할 수 있는 50수 미만의 영세사육규모인 98%의 사육농가는 계열화의 직접적인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2% 농가만의 96% 사육수수를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계열 생산체제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비록 농가수 면에서는 영세규모가 절대다수이지만 이들의 사육비중이 4%에 지나지 않는 데다 사육이 지역적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의한 유통상의 영향력은 거의 무시될 수 있을 뿐더러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급적 생산형태라는 데 있다. 그러나 전체의 96%를 사육하는 2%의 농가는 이와는 반대의 경영여건에 있는 것이다.

계열화의 직접 대상이 되는 2%의 농가도 다시 구분해 보면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대규모 법인체 농장이 다수 있는데, 이들 기업양계는 스스로의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련 기업들과 계열화 형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할 뿐 정부는 기

업양계 수수비중이 양계산물의 유통 및 가격 형성면에서 전·부업 양계농을 희생시키지 않는 적정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전·부업규모 양계농가야 말로 그들은 협동적 조직체를 배경으로 계열화 생산체제가 확립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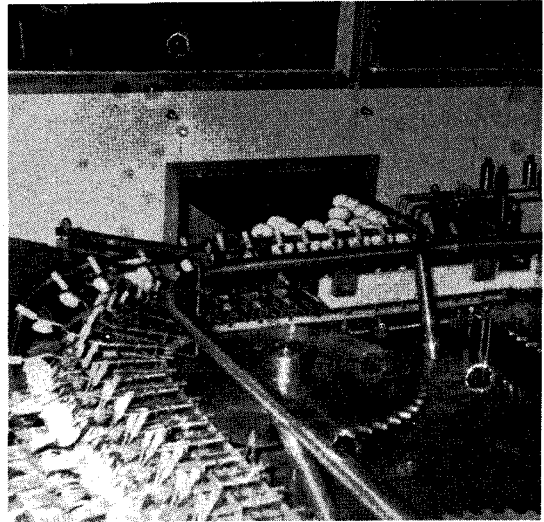
#### 4. 계열화와 축협의 역할

이윤 추구를 경영의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기업양계와는 달리 소규모 양계농가의 자조적 협동 조직체인 축협이야 말로 다수의 양계농가를 계열화하는데는 가장 이상적인 주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양계농가의 협동운동 참여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축협에 의한 양계부문의 기능 또한 취약하지만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가 합리적이고도 상대적인 유리성이 인정된다면 우선 “농물급형”의 계열화 형태를 가사하여 축협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축협을 중심으로 한 양계농가의 조직력을 강화하여 계획적 생산체제를 구축해야겠다. 계열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될 수 있는 것이 강력한 조직력이다. 강력한 조직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사업의 능률도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열화 자체가 번잡스럽고 비능률을 초래할 뿐이며, 더군다나 생산자체를 계획적으로 유도하지 못함으로써 단계에 증식력이 강한 양계의 과잉 과소 생산기복을 오히려 크게 하고 마는 결과가 되기 쉽다. 단순한 계약관계 이전에 다수의 양계농가가 축협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양계농가의 자조적 협동조직체야말로 “신뢰정신” “최대 봉사정신” “전이용 정신” 등이 전제된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둘째, 계열화 주체로서의 축협의 우량한 종계를 확보 또는 개발하여 우수한 형질의 실용



계를 농가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양계의 경우 해외사료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가 국산 종계 또한 개발이 부진한 실정에 비추어 어떤 방법으로도 계열화주체인 축협의 주도적 개발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셋째, 배합사료를 비롯한 생산자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어야겠다. 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투입자체인 양질의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다시 강조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넷째, 양계산물 전문 공판장을 어떤 형태로든 개설하여 이의 거래 중심가격 형성기능을 담당함은 물론 축협의 판매능력 향상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공판장에는 도계장은 물론 저장시설, 가공시설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어떤 농산물이든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동안 자율적 시장기능이 보장되는 도매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여기에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반영은 물론 전국적인 거래에서 중심이 되고 주도가 될수있는 거래중심가격이 형성되어 유통의 원활을 기할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이처럼 축협이 계열화의 주체가 될 때는 판매능력의 향상이 계열화의 성공을 보장하는 생명력이 된다. 계열화 주체가 계열생산을통해서

확보된 물량을 안정적으로 판매할수 있는 능력을 강력하게 갖추지 못하고서는 결국 계열화 생산체제 자체가 불안정 할수 밖에 없게 되며 중국에는 와해되고 마는 결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계열화 주체로서의 축협이 판매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납을 비롯하여 대량수요처와의 직거래체제도 다각적으로 확립되어야 할것이다.

## V. 맺는말

양계는 생리적으로 증식력이 강한데다가 생산기간조차 짧기때문에 과잉·과소 생산의 기복이 불가피하다는 공급측면의 특성에 반하여 수요측면에서 보면 닭고기는 육류중에서도 비교적 열등시될 뿐만아니라 계란은 그 소비의 중심권이 이미 대도시에서는 육가공품에 밀려나 소도시나 농촌으로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양계

산물의 소비가 다른 축산물에 비하여 그 증가율면에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비를 확대하고 양계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며 수요에 적응하는 계획생산 체제로 양계산업의 끊임없는 발전을 지킬수 있는 주체는 바로 양계인 자신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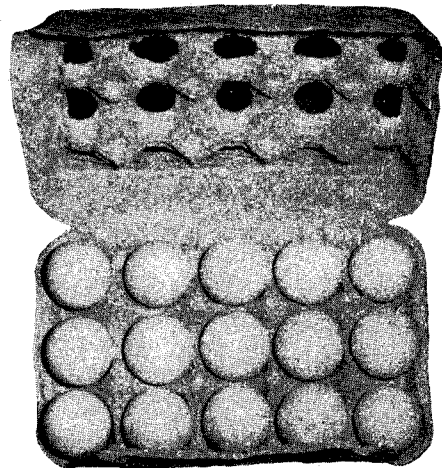
이들의 자조적 협동조직력을 바탕으로 계열화 생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양계산업 발전을 향한 첩경이라 믿어진다. 물론 계열화의 주체로는 기업양계나 관련기업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계열화가 곧 수익의 극대화 수단이 아 니고 전체 양계산업의 안정적, 균형적 발전을 그 주목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초기 개발단계에서는 그 주체는 양계농가 자신들의 협동조직체 이면서 공동적 기능이 강조되는 축협이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쉽게 판단되는 것이다. 이에관한 양계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계열화의 보다 깊은 연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 위생적인 종이난좌를 사용합시다

- 1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2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 (성남) 43-1042, 41-0171